

與 “무죄 판단 수긍 어려워”… 野, 對與 공세 드라이브 가속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범죄사실 증명, 위증교사 고의 없어
김진성 씨 대해선 벌금 500만원 선고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검사·국방부 장관 탄핵 등 속도
국민의힘 “판단 존중하지만 아쉬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당 계사판 논란'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내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장관 탄핵 등 대여(對與) 공세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

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은 지난 15일 '사법리스크' 첫 재판인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충격을 덜어낸 분위기다. 이 대표

와 함께 법원에 동행한 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는 판결을 듣고 이 대표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무죄 선고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려 판결을 환영하거나, 이번 선고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소사라는 방증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여당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고,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광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삼아 '김 여사 특검법'과 탄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된 검사들이 대상이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대북전단 살포 책임을 물어 탄핵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권이 주도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국정조사도 탄력이 붙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국정조사 실시 계획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7일까지 국조특위 위원 선임을 여야에 요청했지만, 여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尹 “양국 간 협력, 국방·방산 등 미래산업 분야 확대 기대”

韓-말레이시아 정상회담

회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4대 분야 협력방안 공동성명 채택
北-러시아 군사협력 심화 우려 표명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간 협력이 교역,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산, 그린수소, 핵심 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발전시켜왔다. 특히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동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양국 간 연대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고, 이를 통해 포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한 말레이시아의 교량·건물 등을 언급하고 “(경제 협력이)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 “계속해서 다방면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안와르 총리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5년 만의 말레이시아 총리 방한이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정부·안보, 경제, 문화·교육·관광, 지역·국제 등 4대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선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 등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대한

민국의 노력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정부·안보 분야 협력에서 특히 방산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상호 신뢰의 상징이래는데 공감하고 연구개발, 군사 기술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22년 맺은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 밀매와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 분야의 안보 분야로 협력을 심화한다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경제협력 분야에서 2025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FTA(자유 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공급망 회복력 등 경제안보 분야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디지털 경제, 녹색 의제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기술교류 확대 의지 확인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가속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보건 의료산업 협력 확대 등이 공동성명에 담겨 있다. /서예진 기자

尹 지지율 25.7% 기록… 6주 만에 20% 중반대 회복

전주비 2.0%p ↑… 부정평가 70.3%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5.7%를 기록해 6주 만에 20% 중반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지지율)는 전주대비 2.0%p포인트(p) 높아진 25.7%로 조사됐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부정평가는 70.3%로 집계돼,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44.6%p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월 2주차 25.8%에서 10월 3주차 24.1%로 떨어진 이후 5주간 20%대 초중반에 머물렀는데, 이날 6주 만에 25% 선을 회복했다.

일간 지지율을 살펴보면 19일(화) 25.7%로 시작해 20일(수) 26%, 21일(목) 25.3%, 22일(금) 24.8%로, 전반적으로 20%대 중반에서 회복했다.

다만 보수 지지세가 높은 부산·울산·경남(PK)에서 전주 대비 5.7%p포인트 오른 30.1%, 대구·경북(TK)은 4.1%p포인트 오른 37.4%로 나타나 여전히 40%를 밑도는 지지율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

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생긴 효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시키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등 성과가 있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2주 차 주간 집계 대비 2.6%p포인트 낮아진 44.9%, 국민의힘은 1.3%p포인트 낮아진 30.3%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14.6%p포인트로 9주째 오차범위 밖을 이어갔다.

/서예진 기자

한동훈 “성장·복지 아우르는 정책 개발할 것”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구성

국민의힘이 25일 한동훈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범죄 혐의의 사법부 판결이 오후에 예정돼 있다”며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생 회복과 경제 발전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바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를 우상향하고 그 과정에서 격차 해소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면서 민생경제특위 출범을 알렸다.

이어 “민생경제특위는 성장과 복지를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겠다”며 “채정, 국토개발, 노동, 환경,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 대한민국을 종합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직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의 능력과 진심을 국민께 증명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7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한 대표가 직접 맡는다. /서예진 기자